

## 이스라엘 기도편지

202506 기도편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지난 주 오순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독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성령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 3) 즉,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 2:17)

여전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 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이 이들에게도 속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가리워진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주의 이름 예수아가 이들의 완전한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행 2:21)

### <이스라엘 소식 및 기도제목>

1. 2023년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질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협상과 가자지구 구호 물품 전달 문제 등으로 내외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의 빈번한 로켓 공격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은 방공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시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 이스라엘 기도편지

시편 42: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환란 날에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3. 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문제 협상을 위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테헤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 유지를 고집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제안이 이란 내부에서 제한적이고 저농축된 우라늄 농축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덮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계획을 파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2:8)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서는 교회되게 하소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찌어다” (시편 129:5)

### <가정 소식 및 기도제목>

1.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을 잘 마친 유환이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수술 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재활이 잘 이루어져서 이전 보다 더욱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자비의 장막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공훈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협력의 관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이스라엘 기도편지

3. 이스라엘 체류를 위한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스라엘에 체류한 햇수가 길어질 수록 비자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등불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길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4. 저와 에덴이도 한국 방문 (6/19-8/17)을 하며, 모든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함께 기도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